



박재순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

한국대담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대담회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72년 1월에 법인등기를 하고 그 해 4월에 국제대담회 호주회의에서 6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어언 40년이 흘렀습니다. 70년대는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안동댐과 대청댐 등 대규모 다목적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들 다목적댐들은 당시에 다른 어느 나라의 댐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댐으로 축조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댐축조 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업적달성은 뒤에서 한국대담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협동하고 노력한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에도 수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다수의 다목적댐과 용수목적댐들을 축조함으로써 전형적인 몬순기후로 인하여 연례행사처럼 발생되던 홍수 및 가뭄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이러한 수자원 개발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댐의 역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댐을 더욱 증설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대담회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댐의 기능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환경보전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환경보전과 수자원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합니다. 한국대담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한국대담회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만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기여해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대담회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